4강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끈 동력 Ⅱ

1교시 프랑스의 로마네스크 건축

▲ 수도원과 수도회

지난 시간에 이어 책 166페이지 보면, 수도원과 수도회라는 게 있어요. 수도회는 한마디로 집단으로 볼 수 있고 수도원은 사이트나 건물, 복합단지가 되겠죠.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수도회는 로마카톨릭 중앙교황청 정부, 즉 카톨릭 중앙정부에서 인가가 나야 합니다. 카톨릭은 계급주의가 강해서 거의 군대에서 부하다루 듯이 하는 등 갈등이 많았어요. 인가를 받기 위해서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그린 성프란체스코라는 영화도 있고 한데, 어쨌든 로마카톨릭 중앙정부에서 인가가 나야 수도회로 정식으로 인정받아요.

책 166페이지 아래 보면, 교회법상으로 수도회는 '오르도(Ordo)'와 '콩그레가시오(Congregatio)'로 나뉩니다. 오르도는 성식서원을 준수하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엄격한 수도회고, 콩그레가시오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수도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세를 이끈 3대 수도회가 베네딕토회(Benedictine Order), 시토회(Cistercian), 프란체스코회(Franciscan Order), 그 다음에 도미니크회(Dominican Order) 등이 있는데, 이렇게 중세 때 있었던 수도회들이 전부 오르도에 속했구요 그 다음 대체적으로 르네상스 이후, 즉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수도회들이 콩그레가시오에 속했다고 보면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수도회중에서도 예수회가 골수 보수 가톨릭을 대표하는 수도회인데, 예수회는 여전히 오르도에 속했구요.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이 밀리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 예수회에서 전위 부대를 만들어 아주 공격적으로 가톨릭을 전파하기도 했고요.

로마네스크 시대의 3대 수도회는 베네딕토회(Benedictine Order), 클뤼니(Cluny)회, 시토회, 이 3대 수도회가 대표적이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유럽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도원 문명을 이해해야 되요.

예를 들어, 서양 쪽에서 동양문명을 이해하려면 불교문화를 이해해야 되죠. 지금 불교를 믿는 신도숫자 문제가 아니라 동양 사람들 정서 밑바탕에, 알게 모르게 불교사상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 국민정서에서 수도회, 수도원, 수도회라는 게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성 베네딕토라는 굉장이 유명한 성직자가 있었어요. 베네딕토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신지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529년에 누르시아에 베네딕토 수도회를 설립한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Sanctus Benedictus de Nursia)가 여러 명의 베네딕토 중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뒤에 누르시아란 말을 안 붙이기도 해요. 이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에 의해서 이탈리아 몬테카시노라는 수도원에서 베네딕토 회가 처음 창립이 돼요.

이 몬테카시노는 일부가 많이 보전이 되어 있는데, 가장 융성했던 1075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그림 229예요. 앞에서 봤던 수도원 표준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종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전제로 한 공동신앙생활을 통해 기독교 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건 수도원의 기본 사상이에요.

베네딕토회에서는 각 수도원의 독립성을 허용했는데, 각 수도원 단위별로 권력화, 사치화되고, 특히 샤를마뉴, 카롤링거 왕조(Carolingian dynasty)를 거치면서 수도원에 많이 개입 하고 지원 하면서 주변 농노들을 노예다 루듯이 하는 등 여러 가지 타락상들이 일어나요.

▲ 클뤼니 수도원의 변혁과 건축의 변화

여기에 대한 집단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클뤼니라는 게 수도원이 중심이 된 도시 이름인데, 수도회 이름이기도 하고 수도원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기도 해요. 그 세 개가 다 같은 거였는데, 이 로마네스크 시기에 클뤼니 수도회에서 베네딕토 수도회에 대한 개혁운동을 이끌면서 새로 생긴 수도회이자 수도원이에요.

최전성기는 11세기 중엽 5대 수도원장 오딜로(Odilo)와 11세기 후반 6대 수도원장 성 후고(Hugo) 때, 한마디로 1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1세기에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네딕토 수도회는 그대로 가요. 이게 생겼다고 해서 수백 개에 달하는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원과 수도회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베네딕토회는 그대로 가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클뤼니 수도회, 수도원이 개혁운동을 이끌게 되는 거죠.

개혁 운동의 요점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베네딕토 회 계율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 종교심에 집중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미사를 중심으로 미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웅대하게 늘리고 시간이라든가 횟수를 대폭 강화했어요. 예를 들어, 오후에 올리는 수도원 미사가 연장되고, 모든 성직자들이 행력과 호칭기도에 참여해야 했어요. 오전에는 죽은 자를 위한 안식(레퀴엠)미사를 드리는 식으로 거의 하루 종일 미사를 드리면서 보내야 하고 사제서품을 받은 수도승은 매일 개인미사를 올리고 시편 전장을 부르도록 되어있었어요.

신교 교회는 좀 덜한데 가톨릭은 일반 신도들을 위한 미사 이외에 성직자를 위한 미사를 더 많이 지내요, 사실은. 초기기독교 때 봤듯이, 이 성소라는 이스트엔드 쪽이 성직자들끼리 미사 지내는 중요한 공간이 있어요. 네이브(nave:本堂)는 일반 신도들한테 개방되는, 일반 신도들이 참여하는 미사 공간이고. 카돌릭은 의식이 많아요, 개신교보다.

개신교는 주로 목사님들이 심방다니는 것처럼 밖으로 많이 나서고 성당은 안으로 불러들이는 구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가톨릭이 오히려 봉사활동이나 화학 활동을 많이 하고. 개신교가 너무 그 종교심에 집중을 해서 신도 수가 지금 우리나라는 가톨릭보다 두배 가까이나 많더라구요. 어쨌든 이거에 비추어 봤을 때, 베니딕토회의 타락상이라는게, 성직자들이 미사는 안 드리고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현실세계에 관여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고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반면에, 수도원의 현실참여 기능을 강화했는데, 이게 베네딕토회의 부정적 타락상인 이권개입이라든가 이런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일정한 봉사 내지는 발전을 도와주는 카롤링거 시대 수도원의 선례로 삼았다는 얘기죠. 성스러운 봉사, 현실 참여도 종류가 있는 거죠. 그 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떤 물질적인 권력적인 그런 이익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처음 하나님이 인간세계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과 바람이죠.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인간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라고 창조하진 않으셨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이나 나나 하느님이 처음 창조한 상태랑 굉장히 다르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 건 반성을 해야 돼요. 원래 창조하셨을 때 바라셨을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어떤 신앙심을 통해서 참회, 회개를 해야 되지만 또 현실세계를 일정부분 뛰어들어서 바꿔야 된다는 게 기독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불교는 떨어져서 개인 수도를 하는 게 주목적인 불교랑은 다른 거죠.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봉사를 통해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클뤼니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11세기는 클뤼니 수도회의 시기였어요. 유럽 전역 1,500여 곳에 분원을 거느렸단 얘기예요. 특히 6대 수도원장 성 후고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원장 할 때에 약 1,500여 곳에 분원을 거느렸단 얘기죠.

클뤼니 수도원이 제 1증축, 제 2증축 이 두 차례의 증축을 거쳐 브르고뉴 지방의 초기 로마네스크를 이끌었다는 얘기는 했었구요. 이후 성 후고 때 두 번째 증축이 일어나요. 그걸 제 3클뤼니라 그러지요. 그게 성기 로마네스크를 이끌게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성기 로마네스크 때 나올 테구요.

그때 얘기했지만, 교회 본당은 프랑스 대혁명 때 대부분 파괴가 돼서 지금은 남아있는 상태가, 202페이지 보면은 그림 268이요, 딱 그거 남아있어요. 그러고 270에서 보이는 기둥 몇 개하고. 근데 원래 모습은 그림 223이 교회, 본당을 포함해서 수도원 전체 단지의 전경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물 크기를 사람 몸과 키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크고 장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늘을 향한 종교심을 상징하고, 내부적으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표현해요. 헤븐리 예수살렘 개념은 저번에 많이 설명을 많이 했었구요. 결국 이 클뤼니 수도회도 개혁을 표방하며 시작했지만 이것도 역시 과도한 욕망에 의해서 타락을 하게 되요.

베네딕토 수도회가 대체적으로 수도원 밖에서 혹은 어떤 물질적·권력적 측면에서 타락을 한데 비해, 클뤼니 수도회는 건물을 가지고 균형을 상실한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타락한 전형적인 예에 해당이 돼요.

건축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건축을 통해 욕망을 부린 예 중 하나구요. 고대 전제정권 하의 원시거석구조에 해당되는 기독교 거석구조의 예고. 특히 세속 권력이 아니라 종교문제라는데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순수 양식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클뤼니 수도원 교회가 브르고뉴(Bourgogne) 지방의 성기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끈 중심지였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기여를 한 이런 양면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시토 수도회의 등장

클뤼니가 부패하면서, 12세기 후반부터 반성과 비판이 일기 시작해요. 이게 시토 수도회죠. 그래서 12세기는 시토수도회의 시기예요. 6세기는 베네딕토회가, 11세기는 클뤼니가, 12세기는 시토수도회죠. 1098년에 브르고뉴 지방에 시토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곳은 시토수도회의 총 본산인 시토수도원이 중심이 된 도시인데 작은 도시예요. 그 전경이 그림 229죠.

시토수도회도 또 급속히 확장을 하면서 13세기 말에는 그 수가 740여곳에 달했어요. 그림 227이 시토수도회가 있는 주요 도시들 분포지도예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빼곡이 모여 있는. 클뤼니 수도회가 의식이나 제식을 강화한데 비해 시토수도회는 개인의 극기, 특히 노동으로 돌아가자라는 걸 강조해요. 클뤼니 수도회의 개혁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미사죠. 하루 종일 미사를 드렸단 얘기는 농사를 안지었단 얘기예요, 수도승이나 수도사들이. 경제적인 기반은 여전히 주변의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농노로부터 착취를 했단 얘기예요.

그에 반해 시토 수도회는 기도와 노동이라는 베네딕토회의 초기정신으로 돌아가자 해서 가난, 노동, 친목이라는 시토 수도회만의 세 가지 덕목이 확립되요. 성실하게 일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로 만족하고, 쓸데없이 수다 떨지 말고, 그 세 가지로 돌아가잔 얘기죠.

그림 228, 시토수도원의 시간표 일과를 보면 여러 가지 노동도 많이 들어가 있구요. 성 베르나르두스(Bernardus Claravalensis)때 시토수도회의 자리가 많이 잡히게 돼서 네 개의 수도원을 세웠어요. 시토수도원이 총본산이구요, 그다음에 퐁트네고, 주변의 예들이 있고.

시토수도원 때는 물줄기를 끼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요. 성작정화, 기독교에서는 세례로 대표되는 물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당 들어가면 항상, 성수에 물 찍어서 십자가 긋고 하는 게 다 더러워진 몸과 정신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죠. 물줄기를 끼고 있는 모습이 그림 231이죠. 그 다음 233은 시토회 수도사들이 노동 중에 목수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농노에게 시키던 건물수리서부터 장작 패기 등 모든 일들을 전부 자신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시토수회는 가난, 노동, 침묵의 정신에 맞춰 건물도 아주 검소해졌어요. 시토수도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 그림 235부터 237까지고 퐁트네 수도원에 있는 본당 수도원 교회예요. 외관도 보면 꼭 필요한 것만 있죠. 실내도 보면 빛, 그 담에

가장 기본적인 건물 골격 이외에 모든 것을 절제한, 퐁트네 수도원은 비교적 개방이 잘 되요. 시토수도원은 지금도 수도승들이 수도를 해요.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내자가 관광객들을 모아서 몰고 다녀요. 여긴 5분 늦게 가서 못 봤어요. 보려면 그 담날 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건 못보고 그냥 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전경만 찍었어요.

이 극기적인 건물 모습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시토수도원 중에 시토수도회의 수도원 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원래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게, 퐁트네 수도원이에요. 성베르나르두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시토회 수도원 구성이 그림 232구요, 퐁트네 수도원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34예요. 180도 뒤집어놓으면 서로 거의 비슷해요. 많이 유사한 걸 알 수 있구요. 다시 223으로 가보면, 클뤼니 수도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지 경방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 수도원은 기능이 많아요. 별별 일들이 다 기능들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우리 생꼴 성발로에서 봤던, 하나의 도시를 이룰 정도의 복잡한 기능이 그림 223에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건물 복합단지가 이렇게 크고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대폭 줄였어요, 교회회랑, 챕터하우스, 필사실, 활동실, 기숙사 식당 정도로 꼭 필요한 핵심기능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의 수도원들이 기능이 많았단 얘기는 거기에 여러 노동 계층을 거느리고 있었단 얘기예요. 농노부터 시작해서 가축일 보는 사람 등. 그런 걸 다 뛰어넘어 수도사들이 직접 하게 되니까, 수도원에 수도생활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남기고 분사를 다 떼버렸단 얘기죠. 이런 성 베르나르두스가 제시한 시토수도회의 이상적인 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퐁트네 수도원이에요.

특히, 그 오른쪽에 있는 수도원교회 본당을 보면, 꼭 중학교2학년쯤 된 모범생 보는 느낌이에요. 안 그래요? 때 묻기 전에 교육 잘 받아가지고 몸가짐이 단정하고 여섯시에 딱 일어나서 그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특히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스트엔드 보면 성가대에서 한베이(bay)만 딱 있잖아요. 그죠. 이거랑 같은 초기 로마네스크 때 이스트엔드와 비교해보면, 이스트엔드가 아주 단순해졌어요. 이 이스트엔드는, 성직자들을 위한 성단소인데, 성직자들의 공간이 단순해졌단 얘기는 성직자들이 권위나 쓸데없는 의식, 제식들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4강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끈 동력 Ⅱ

2교시 순례여행과 순례교회 건축

▲ 순례여행의 개념

수도원에 이어서 로마네스크 때 이 중세 기독교를 부활, 융성하게 한 게 순례여행이라는 거예요, 순례여행. 성지 순례는 지금도 다니는 거지만 저 때 생긴 전통이죠. 말 그대로 성스러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행을 순례여행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목적지란, 기독교에서 예수의 행적과 관련된 도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 성인이나 순교자 등과 관련된 중요한 도시예요. 순례여행은 초기 기독교 때부터 시작됐단 얘기죠. 예수살렘의 성묘교회(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로마의 성베드로 무덤 등을 목적지로 한 두 개의 순례루트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다 로마네스크 시대에는 성 야곱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를 목적지로 삼는 순례루트가 형성됐단 얘기예요. 스페인에서 기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예요.

로마네스크 시대 때 순례지는 순례객이 많이 찾는 순서를 기준으로 공식화되었고 정형화된 순례루트가 생겨났어요. 성 야곱(Saint Jacob)이란 인물은 12사도 중의 한분이고, 복음서와 사도행장과 관련되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초로 순교를 당한 인물이에요.

베드로나 바오로도 순교를 당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죽음이 정확히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공식적 기록에 의하면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곱으로, 41-44년 사이에 유대 땅에서 참수당한 뒤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어 멀리 도망을 갔단 얘기죠. 그래서 갈리지아 해안에 묻었어요.

스페인은 이후 유럽 알프스 이북 유럽가운데 기독교 개종이 제일 빨랐던 지역이고, 이후에 카돌릭의 총 본산 중 하나로 남아요. 나중에 종교개혁 일어나고 해도 스페인은 굳건했어요. 독일이랑 영국의 종교개혁이 제일 심했고요, 개신교가. 프랑스는 이제 가운데서 왔다갔다하고. 칼뱅(Jean Calvin), 칼비니즘(칼뱅주의/Calvinism)해서 프랑스도 종교개혁운동이 심했는데도 카톨릭이 국교로 남죠, 프랑스는. 그래서 양쪽이 막 충돌하는 지역이고요. 독일은 종교개혁의 발상지답게 신교로 개종이 되고요.

영국은 애매해요. 표면적으로는 영국 국교는 영국성공회라는 신교예요. 신교인데 내용적으로는 가톨릭하고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유독 가톨릭이 99%이상 굳건하게 남아있는 지역이죠. 스페인은 지금도 그래요. 스페인이 침략해서 세운 남미도 그래서 대부분 가톨릭이죠. 남미도 가톨릭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에 이렇게 가톨릭이 융성할 수 있었던 게, 야곱의 보살핌 즉 야곱의 순교 덕분이라고 믿게 되면서 야곱은 스페인의 수호성인이 되었어요.

당시 스페인은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샤를마뉴(Charlemagne)가 들어오면서 스페인 해방전쟁을 벌여요. 샤를 마뉴가 완전한 승리는 못 거두고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했어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이 샤를마뉴가 뭘 했냐하면 야곱의 무덤을 찾아내요. 야곱의 무덤을 천사의 도움으로 찾아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독교 열기에 불이 당겨져요. 그러면서 기독교도들에 의한, 그러니까 샤를마뉴 개인의 영토야심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기독교 대 이슬람의 큰 종교문명구도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도들 전체가 합세하면서, 912년부터 기독교도에 의한 이베리아 반도 해방운동이 전개되고 1002년에 완전 승리를 거둬요. 우리가 아는 알함브라 궁전 이런 건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던 당시에 세워진 스페인 유적이고, 1002년부터는 (이슬람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그 넘어가게 되는 거죠.

▲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여행의 시작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중요한 도시예요. 단순히 로마네스크 순례루트의 종착지가 된게 아니고, 일종의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 야곱의 무덤을 잘 활용한 사람이 아스트리아스(Asturias)의 왕 알폰소 2세(Alfonso II)예요. 그는 무덤이 발견된 지점에 세 채의 교회를 지어서 종교적 이벤트를 벌였어요. 카롤링거 왕조와 거래도 시작했고요. 카롤링거 왕조도 수도원을 지원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기독교를 끌어들이고 싶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익이 잘 맞아떨어져 증폭효과를 내면서 스페인이 가톨릭 왕국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성물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하면서 야곱의 성물이 보관되어 있는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로 가는 순례여행이 시작 됐단 얘기예요.

1002년에 스페인이 완전히 해방이 되면서, 이슬람 교도들의 공격을 받지 받고 생명의 위협 없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갈 수 있는 순례루트가 형성됐어요. 이 순례루트는 네 갈래가 있었어요, 당시에. 파리(Paris)에서 출발하는 거, 베즐레(Vezelay)에서 출발하는 거, 루삐(Le Pey)에서 출발하는 거, 아를(Arles)에서 출발하는거. 그림 240이 그 지도예요.

중간 한군데서 만나서 쭉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어지는 루트에 대한 설명들이 182 페이지에 나오구요. 가는 길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거점 도시들이 쭉 생겨나게 돼요. 다시 지도를 보면 많은 도시이름들이 있어요. 이 도시는 방문객들의 숫자가 많은 곳이 주요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성물을 많이 보관하는 도시일수록 방문객의 숫자가 많아져요. 당연하겠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때 성물을 모으는 경쟁이 많이 벌어져요. 다른 도시에서 큰 돈을 주고 성물을 사오고. 돈 주고 성물을 사와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몇 년안에 다 뽑네, 어쩌네 해서 이때가 기독교 유물이라든가 교회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거죠. 도처에 흩어져있고 벌어져있던 것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요. 기독교 발전사에서는 순례여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즉 밑에서부터 일어나 운동이죠. 순례여행은 가톨릭 중앙정부라든가 각 도시의 수도원, 성당의 성직자들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의 열기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일어난 여행이에요. 이 순례여행이 기독교 발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순례여행은 이슬람들에 의한 공격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다보면 병도 걸리고, 강도도 만나고, 심지어 맹수의 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림 239 보면 늑대떼의 공격을 순례객이 막대기로 물리치는 그림이에요. 옛날에는 말이나 탔을지 모르지만, 이거 다 걸어서 갔죠. 이게 한달 두달 세달씩 걸리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기독교 열기가 당시에 얼마나 컸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죠. 1002년 스페인이 해방되면서, 11세기때 순례여행이 절정에 달해요.

11세기는 보면 클뤼니 수도회 시기예요. 이 클뤼니 수도회가 순례여행을 이끈 중심지이기도 해요. 18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클뤼니 수도회는 11세기 이후 이런 열풍을 이끈 조직화된 기독교 세력 가운데 대표격이었어요. 클뤼니 수도회 자체는 루삐로 모이는 작은 갈래가 출발하는 지점이기도 했지만, 분원까지 포함하면 네 갈래 순례루트 가운데 두 루트를 클뤼니 수도회 소속 수도원들이 점령하고 있었단 얘기고요.

▲ 순례교회의 등장 및 건축의 특징

순례루트에 중요한 거점 도시들에 순례교회라는 게 지어져요. Pilgrimage Church(순례교회). 로마네스크 성당의 표준형을 일정부분 공유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순례교회만의 독특한 구성을 추가로 가져요. 순례교회는 그래서 로마네스크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교회 유형 가운데 하나예요. 교부 교회도 나오고 바실리스크 교회도 나오고, 로마네스크 때 중세 기독교 건축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건축들이 분화를 많이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순례교회도 중요한 유형 중 하나라는 얘기죠.

순례 교회란, ① 로마네스크 때 순례루트를 따라 중요한 중간 순례지에 세워졌어요. ② 로마네스크 시대의 표준형 교회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어요. ③ 주요 목적은 중요한 성물들을 보관함으로써 중간 순례지의 기독교적 중요성을 찬양하거나 힘든 순례여행 도중 종교적 열정이 식지않게 유지시켜주는 목적을 가진 교회였어요.

순례교회의 대표적인 건 그 종착점에 세워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세워진 성야곱 교회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그나마 잘 정리되어 있는 다섯 채의 순례교회예요. 그게 뒷페이지 그림 244예요. 이 도면은 스케일에 맞춰서 그린거예요. 3번만 좀 작고 나머지들은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투르(Tours)에 있는 성 마르티노, 리모주(Limoges)에 있는 생마르시알(Saint Martial), 콩크(Conques)에 있는 생트프와(Sainte Foy), 툴르주(Toulouse)에 있는 생세르넹(Saint-Sernin), 그 다음 마지막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있는 성 야곱이죠.

이 중에 지금 기초만 남아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성 마르티노 먼저 보면 이 순환동선(循環動線)이란 게 중요해요, 순례교회에. 다른 로마네스크 성당에는 안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순환동선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초기로마네스크의 대표적인 건물인 그림 143과 비교를 해보지요. 트란셉트((Trancept, 익랑)가 5랑식(五廊式)에서 3랑식(三廊式)이 되면서, 이 와이를 따라 들어가 다시 이리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번도 안 끊기고 성당 전체를 한바퀴 돌 수 있는 동선이에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트라셉트가 3랑식으로, 바꿔말하면 5랑식 바실리카(basilica)에 3랑식 바실리카를 수직으로 겹쳐놓은 게 트란셉트가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트란셉트를 3랑식으로 해서 동선을 쭉 돌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성물보관소, 즉 채플(chapel)을 둘 수 있는 복도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순례 여행객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어디있는지 우왕좌왕 찾고, 누구 엄마 일루와 여기있어 이러면 이 안이 난장판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동선처리가 매끄럽게 되고 채플이 놓일 수 있는 복도면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성직자들의 공간인데, 동선을 분리시키니까 성직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순례여행에서, 순례교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림 245는 순환동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 중 하나예요. 185 페이지 첫번째 보면, 예배당이 놓일 수 있는 장소를 늘려줬죠. 예배당이 면한 복도의 길이를 늘려줬단 얘기고, 이건 곧 성물이 보관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순례교회에서는 성물의 양과 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당연한 얘기고요. 동선흐름의 기능적 측면에서 유리했어요.

한바퀴 쭉 도는 이런 동선은, 순례루트 전체로 보면 밖에서부터 시작된 순례루트가 건물 밖부터 한번도 안끊기게 되죠. 순례루트 전체로 보면 멀리서 파리에서 시작되서 이렇게 와서 돌고 나와서 다음 길로, 순례루트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는 기능을 가졌고 성직자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다는 내용이 쭉 나와있어요.

생트프와에 오게 되면 조금 변형이 되게 되요. 187페이지 아래에 보면 둘째, 예배당이 제형과 복도형의 혼합으로 구성되었다고 나와요. 제형이라는 걸 찾는 방법은, 인덱스의 w을 가보면 거기 제형이 있어요. 이 책 보면서 여러분들, 인덱스는 처음 들어보죠. 이제 페이지 처음부터 찾아가보면 되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해야 되지요.

88페이지를 가봐요. 아래 보면, 반면, 세 앱스(apse:後陣)를 모두 합친 폭으로 해서 세 앱스가 벽을 공유하며 나란히 붙어있는 처리는 향후 제형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물은 툴루즈에 있는 생 세르넹인데 그 내용은 다음에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성 마르티노에서는 순환동선이 정리되어서 제일 커요. 채플들이 이런 식으로 방사선 방향으로 되어있는 게 복도형, 순환형, 이런 종 방향이랑 나란히 있는 게 제형이에요. 성 마르티노도 보면, 복도형(엠블레트리에서 나온 말), 방사형, 제형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생세르넹인데, 그림 252부터 생세르넹이 시작되요. 평면을 보면 바실리카 표준형, 5랑식 네이브(Nave:本堂)와 3랑식 트란셉트, 이스트엔드에서 표준형이 딱 정리가 되요. 모듈(module) 규성이 비교적 잘 정리가 되죠. 그 다음, 규모가 웅장해지고 순환동선이 잘 처리 되고 수직 비례가 실내를 지배했고요. 이 다섯 가지가 순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중 일부는 로마네스크의 일반 성당하고도 공통점이고 일부는 순례교회이기 때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문에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다섯 가지가 순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정리된 대표적인 예가 생세르넹이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도 이것의 연장으로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도원과 순례교회를 봤고, 그 담에 이제 성기 로마네스크로 넘어가요.

▲ 로마네스크 건축 표준형의 완성 -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쌍개념 등장

프랑스 성기 로마네스크는 1070에서 1150년인데 이때가 되면 성기 로마네스크의 표준형이 정착을 한단 얘기죠. 그래서 초기 로마네스크(Early-Romanesque)에서는 남부와 북부가 많이 달랐어요. 프랑스 내에서도 브르고뉴 지방과 노르망디 지방이 틀리고, 북부도 보면 작센 지방과 라인강, 라인 강도 상류와 하류가 틀려요. 이렇게 여러 경향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어떤 완성된 표준형이 있을 거예요.

완성된 표준형에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브르고뉴에서 이거 하나, 작센에서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렇게 나뉘어 찢어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표준형, 즉 제일 완성된 표준형이 등장하게 되요. 이게 유럽건축 전체로 보면은 좁은 의미의 양식사조(樣式思潮)예요.

양식사조에서 중앙의 표준형이 최초로 완성된게 성기 로마네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리스부터 로마 초기기독교를 쭉 거치면서 러프하게 완성점을 잡아낼 순 있어요. 하지만 대표성도 가져야 하고, 여러지역에 고르게 분포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을 만족시킨 예는 아직 없었단 얘기죠.

로마 건축은 표준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로마 건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콜로세움(Colosseum)을 표준으로 잡을 수도 없고, 판테온(Pantheon)을 표준으로 잡을 수도 없고요. 또 초기 기독교 건축도 바실리카나 이런 것을 초기 완성형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생겼고요. 유럽 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기 로마네스크 시기에 비로소 최초로 이런 표준형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어떤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이게 하나의 문명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나 사회, 도시국가, 국가, 지방 보다는 문명이 상위 개념이에요. 지금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문명체계 아래 나라들도 분리가 되듯이. 이런 개념의 표준형 양식이 최초로 완성된 시기가 성기 로마네스크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양식을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마다 차이점들이 존재한단 예기죠.

국제주의 표준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군데군데 숨어있을 수도 있고요. 외관 모습, 장식 이런 것이 지역적 특징이라도 구조 공법이나 골격은 일정하게 국제성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표준형이 있어요. 거꾸로 말해, 표준형이 직설적으로 반복 된다 해도 각 지역에 따라 최소한의 지역성은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또 이때부터 국제주의와 지역주의라고 하는 상당히 큰 쌍개념이 등장하게 되요. 이것은 유럽건축을 바라보는 큰 시각 중의 하나예요. 소문자로 쓸 수 있는 국제주의 (intenational Style)라는 말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이후 국제적 신고전주의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다 19세기 때 유럽이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침탈하고 갖기 시작하면서 지구 전체가 최초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산업기계문명이 달라붙으면서 20세기에 대문자로 쓰는 고유명사로서의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일로 빌딩이나 서울역, 광화문에 있는 서울역사 박물관, 미도파 옆에 있는 은행이 International 스타일이에요. 이때 등장한 국제주의는 19세기까지는 유럽 내에서의 선두주자의 대표 양식에서 후발주자에게는 지역성 사이에 갈등이나 상호 관계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개념이었어요.

전세계를 서양 대 나머지를 제 3국가로 하는 콜로니얼리즘(식민주의/colonialism) 등이 20세기 전반부까지의 개념이고, 20세기 후반에 오면 인터내셔널리즘(Internationalism)에서 세계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끝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성기 로마네스크 때인데, 이때만 해도 유럽은워낙 여러 나라들이 다닥다닥 등을 맞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라 어느 나라에서 먼저 새 양식을 창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국가적 자존심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갖다 주기 때문이죠.

프랑스와 독일이 거의 균등하게 성기 로마네스크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개념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프랑스 성기 로마네스크도 초기와 마찬가지로 브르고뉴 지방과 노르망디 지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브르고뉴 지방은 제3클뤼니, 베즐리에 있는 쌩 마델렌, 이 두 건물이 대표적인 예에요.

▲ 제3클뤼니

제3클뤼니, 아까 앞에서 수도원할 때 나왔던 게 다시 나와요. 성 휴고가 1049년에 클뤼니 수도원장에 오면서, 클뤼니 위상에 맞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수도원을 구상했어요. 이사람도 굉장히 야심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수도원 공사는 40년 후에 시작이 되요.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한 인물이어서, 갑자기 높이 올렸다 무너질까봐 클뤼니 공사를 시작하기 전 최소 세 군데에서 건축적 실험을 하게 되요.

느베르(Nevers)에 2개, 누아레에 있는 1개로 세 건물의 착공시기는 제3클뤼니보다 빨랐어요. 그러니까 성 휴고는 처음부터 건물을 높이 올릴 자신이 없었던 거 같아요. 지금 제3클뤼니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성 휴고가 실험했던 이 세 건물은 제3클뤼니의 상태를 추측하는데 결정적 자료가 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성 휴고가 제3클뤼니에서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줘요.

대표적인 게 3개 중에 느베르에 있는 쌩테튀엔(L'église Saint-tienne)이에요. 평면은 3랑식 라틴크로스(Latin Cross) 바실리카의 표준구성, 네이브월은 3단구성, 코어(core)기둥은 정사각형 단면이죠. 평면이 몇 랑식 몇 베이냐, 전체 윤곽이 라틴크로스냐 뭐냐 등 중세 성당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보는 기준들이 딱 정해져있어요. 네이브를 봐야하고 기둥 시스템을 봐야하고 외곽의 버트레스(buttress)나 플라잉 버트레스(flying buttress:飛梁)를 봐야하고 천장 봐야하고 그러면 되요.

그런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쭉 발전을 해서 고딕성당에서 중세 기독교 건축의 최종 완성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3클뤼니는 특별히 새로운 기술 발전은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 있었던 기술발전을 종합화해서 높이 올린거예요, 한마디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① 네이브의 분화를 통한 수직성의 모색, 즉 아케이드, 갤러리, 천측창의 삼단구성이 정착이 되고요. 그 담에 수직성의 궁극적 목적으로 수평성과의 조화 및 균등한 조도에 의해 얻어져요. 로마네스크의 수직성은 대다수는 건물 외의 외관에 더해진 첨탑에 의해 얻어지는 거고요.

② 실내 천장고는 높지 않아요. 천장고 높이에 비해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수평성과의 균형감과는 많이 남아있게 된단 얘기예요. ③ 종합화, 즉 그때까지 축적되어온 건축기술과 시공기술을 하나로 통합하죠. 각 지역에 따라서 로마네스크를 이루는 각 구성들이 하나씩만 찢어져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았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하는 극점을 보여준 걸로 볼 수 있죠. 이 수직성과 수평성 양쪽 규모면에서 로마네스크 성당이 갈 수 있는 그 극점을 보여준 걸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 제3클뤼니 지어질 당시 수도원 전체의 모습이 그림 286, 287이죠.

지금까지 본건 쌩테티엔이고 이걸 모아서 제3클뤼니를 짓게 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은 파괴되서 안 남아있는데, 그림 268의 베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 기둥들을 박물관에 모아놓은 게 그림 269고요.

웅장한 규모, 외관은 수직성을 강조하는 첨탑군, 규모에 맞는 복합구성을 통해 제3클뤼니가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지금 그 기초는 남아있기 때문에 평면은 271처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268을 근거로 네이브의 전경을 추측해서 실내가 어땠을 거라는 걸 그린 게 그림 272. 특별히 이제 새로운 발전은 없는 가운데, 느베르에 있는 쌩테티온에서 나타난 종합화가 좀 더 규모가 더 커져 극단적으로 추구된 내용들이 204페이지에 넷째까지 설명이 되어있고요.

종합화와 별도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인티드 아치(Pointed Arch)의 사용이에요. 로마네스크는 반원형아치, 고딕시대부터 포인티드 아치가 되는 게 중요한 기준이죠.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인데, 일부 로마네스크 건물에 이미 포인티드 아치가 부분적으로 개별 어휘로 쓰이기 시작해요.

원래 포인티드 아치는 천장볼트(vault), 기둥 시스템, 플라잉 버트리스와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는 거예요. 그건 고딕(양식) 가야 완성이 되고, 유기적인 구조체계의 한 요소로서 작용하기 전에 개별 어휘로서 로마네스크부터 사용하게 돼요. 이런 현상을 프로토고딕(Proto-Gothic)이라고 불러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프로토 고딕의 어휘로서 포인티드 아치가 이 건물에서 처음 쓰이게 돼요. 포인티드 아치가 반원형 아치보단 구조적으로 우수해요. 그 내용을 고딕에서 다루게 될 거구요. 제3클뤼네에서는 포인티드 아치가 쓰인 그 그림이 273,274에 나오고 있어요. 아일 천장, 네이브천장 포인티드 아치의 뾰족함 정도가 심하진 않아도 분명히 포인티드 아치고 포인티드 아치의 구조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천장으로 높이 올라가고 네이브 폭이 10.8미터까지 확대되는 것, 롱스팸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포인티드 아치의 주요 장점이에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잘 살려서 이 건물이 수평, 수직 양방향으로 커져가는 로마네스크 표준구성이 종합적으로 모였을 때 극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극점의 한계를 상당히 끌어올린 점에서는 단순히 종합화에 머문 게 아니라 일정한 독립적 중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단 얘기죠.

206페이지 보면, 제3클뤼니는 인근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솔뤼에 오띵, 랑글, 느베르 등 여러도시들에 퍼져다갔단 얘기예요. 그림 275, 276이 제3클뤼니에 영향을 받아 모델로 삼아서 세워진 대표적인 건물이고요. 베즐레(Vezelay)의 성마들렌(생트마들렌)은 다음시간부터 하겠어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